

## 행복한 성탄 맞이하기!

윤 성 희

12월이다. 12월에는 대림의 시간을 보낸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날이 있다. 바로 성탄절이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임과 동시에 인간 세상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을 기억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번 달은 아래에 소개한 책과 영화와 노래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탄절이란 마냥 들떠서 나 혼자 신나게 보내는 날이 아닌 이웃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우리 모두 어느 때보다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자두 1집 Jadu Version 0001(예담음향, 2001년)

### 돈이 없어도 즐거운 성탄절 - 일 년 만에 돌아왔네(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는 더 자두의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일 년 만에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선물을 사줄 형편이 되지 않아 뜻깊은 마음의 선물을 대신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한다는 것. 평소에는 속도 썩이고 말썽도 부렸지만, 오늘날은 그 사람을 위해 바른 생활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변변한 선물을 사 드릴 형편은 못되지만, 정말 성탄절 하루만큼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분이 바라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예수님 마음을 께나 아프게 했던 우리들,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 일 년 만에 돌아왔네

어떤 것을 준비해야 좋을까 너 오늘 귀빠진 날  
돈이라고 땡전 한 푼 없는데 뜻깊은 뭐 없을까  
밤새 고민하고 있네 이거 정말 야단났네  
가진 거 다 주고 싶어 내 마음을 다 줄래

\* 너의 생일 축하해 기쁜 생일 축하해 생일을 축하 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happ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happy birthday to you  
오늘은 당신이 태어난 날 너 정말 멋진 걸

오늘만은 너를 위해 다 할게 시킨 대로 다 잘 할게  
말로는 널 괴롭히고 있지만 내 마음 너도 알지  
언제라도 지금처럼 너의 엔 내가 있어  
오늘만이 아니라도 너를 정말 사랑해  
(\*표시 반복)

오늘만은 잊어버려 모든 걱정 근심들  
사랑하는 너의 생일 일 년 만에 돌아왔네  
일 년이나 기다렸네 일 년 동안 참았다네 일 년 만에 돌아왔네

너의 생일 축하해 기쁜 생일 축하해 생일을 축하 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오늘은 당신이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해  
정말로 축하해 니 생일 축하해 아주 많이……

### 함께해야 즐거운 성탄절 - 더불어 메리 크리스마스

생활성가 가수 권성일의 '더불어 메리 크리스마스'는 생일을 맞은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끼리끼리 모여서 신나게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그린 노래다. 이 노래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물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조차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웃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해야 즐거워지는 성탄절! 권성일의 '더불어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며 아이들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



▲더불어 메리크리스마스(작사·작곡 권성일)

## 더불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들떠서 주위를 보지 못했지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아오 우리의 손길 필요한 곳 많아오  
해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들떠서 기도를 하지 못하지  
예수님 탄생한 이 기쁜 날에 우리는 흥청망청 우리끼리만

\*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 놓고서 이웃과 함께 기쁜 크리스마스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Happy birthday to you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을 조금만 나눠요 더불어 이웃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표시 반복)

낮은 자로 오셔서 낮은 이와 함께하신 우리 주 그분이 오늘 나셨다네  
찬미와 영광을 주께 메리 크리스마스

Happy birthday to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조금만 나눠요 더불어 이웃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 달콤한 성탄절 - 찰리와 초콜릿 공장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영국의 작가 로알드 달이 1964년에 발표해 큰 인기를 끈 동명의 아동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미 1971년에 〈초콜릿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한 적이 있고, 2005년 9월에 새롭게 개봉했다. 세계 최고의 초콜릿 공장인 ‘윌리 웡카 초콜릿 공장’에 초대 받은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전 세계 어린이 중에서 ‘윌리 웡카 초콜릿’ 포장 안에 들어 있는 황금 티켓을 찾은 다섯 명의 어린이들만 맛있는 초콜릿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윌리 웡카 초콜릿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네 명의 조부모와 부모님과 사는 가난한 찰리도 이 기회를 잡게 된다. 찰리와 황금 티켓을 찾은 나머지 네 명의 친구들은 공장을 견학하지만 찰리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한결같이 욕심과 이기심, 승부욕과 과시욕으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항상 남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찰리,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성탄절에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감독·팀 버튼, 출연·조니 뎀 외, 2005년)

##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있어 즐거운 성탄절 - 산타 할아버지

레이먼드 브릭스의 작품인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의 일상을 그린 동화책이다. 1973년 ‘케이트 그린어 이’<sup>1)</sup>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지난 성탄절 이후 1년을 여유롭게 보낸 산타 할아버지가 다시 성탄절이 다가오자 루돌프에게 먹이를 주고, 선물을 챙기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 주기 위해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만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우리는 일이 많아서 투덜대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모두 전해 주고 난 뒤 다시 여유를 찾고 기뻐하는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에게 이 동화와 더불어 산타 할아버지의 원조인 니콜라오 성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자. 또,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누군가에게 산타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될 순 없을까 생각해 보며, 세상의 모든 산타 할아버지들을 위해 화살기도 한번 쏘아 보내는 건 어떨까.

## 진실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 꼬마 공룡 코코누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잉고 지그너의 작품인 『꼬마 공룡 코코누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길 잃은 친구를 돕다가 ‘크리스마스’라는 선물을 받게 된 착한 공룡 코코누스의 이야기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공룡 섬에 살고 있던 코코누스는 남극에서 떠내려 온 펭귄을 만나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우연히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산타 할아버지와 크리스마스를 처음으로 알게 된 코코누스와 공룡 친구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자신의 마을에 초대하고, 산타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도 준비한다. 난생 처음 선물을 받아 보는 산타 할아버지는 그들의 어여쁜 마음에 감동해 함께 즐거운 파티를 즐긴다.

이 책은 공룡 마을에 찾아온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해 우리 또한 첫 성탄을 맞은 듯한 설렘의 기쁨을 맛보게 해 준다.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일 년이 지나면 또 찾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매해 처음 맞는 성탄절처럼 올해 성탄절을 더욱 기쁘고 뜻 깊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영국의 도서관 협회에서 주는 상으로 해마다 최고의 그림책 작가에게 준다.

윤성희\_아가다  
서울대학교 난곡동 성당 중고등부, 서울대학교 중고등부 사목부(편집부)에서 12년 동안 교사로 활동했다. 방송 작가, 작사가, 카피라이터, 문화 기획 등 다수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산타 할아버지(레이먼드 브릭스, 박상희 역, 비룡소, 1995년)



▲꼬마 공룡 코코누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잉고 지그너, 김계현 역, 김영사, 2004년)